

인도네시아 - “왜 중국 제품이 비싸지지 않나” 의심스러워 해

인도네시아의 섬유 업계에서는 차이나 플러스 원의 움직임에 호감을 느끼면서, 섬유 제품 수출의 신규 계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좀처럼 오르지 않는 중국 제품의 가격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중국은 금년 들어, 신 노동 계약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금융(金融)을 긴축하고 있으며, 환경 중시 정책(環境 重視 政策), 인민 위안고(人民 元高), 물가 상승 등으로, 섬유 제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왔다. “이제까지 중국 일변도(中國 一邊倒 : 섬유 무역이 중국에만 기울어짐)였던 고객이, 소재로부터 봉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매력을 다시 발견하고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일본계 상사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현상을 실제로 알아보면 “그런 은혜는 이제부터이다. 현시점에서는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실적은 아직 없다.” 또는 “인도네시아 제품과 비교하여 중국 제품은 아직 값싼 것이 많다.”라고 하는 등으로, 신규 주문 계약은 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 프린트 파자마(綿 print pajama)에 대한 문의가 있어 FOB(free on board)로 6 달러라고 대답하였더니, 중국 제품은 3 달러이다.”라는 대답이며, 비록 품질이 좋은 상품이라도 가격차 때문에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중국보다도 인도네시아의 면 텍스타일은 20% 비싸다. 면화는 국제 가격이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중국 코스트는 크게 올랐을 텐데, 의문을 느

긴다.”는 등 예상과는 달리 가격차가 아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코스트를 계산하면, 중국 제품이 이렇게 싼 가격일 수가 없다고 업계 사람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금융 긴축(金融 緊縮)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섬유 공장이 ‘환금(換金) 팔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기업은 ‘코스트 쌓아올리기 방식’으로 최초의 원료로부터 손해를 보는 장사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업을 하는 자세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가격차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사는 중국의 특정된 2~3개사와 항상 경합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2008년 전반기는 무리이지만, 후반기에는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기업의 차이나 플러스 원 현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